

**PRESSBOOK**

Jean-Michel OTHONIEL

*W*

*June 2017*



▶ 1 June 2017

W eye

유리알 유희

유리로 된 백동은 이어서 거대한 피드를 이루고, 검은 유리알로 연결되어 연못을 이루었다. 연못과 강민원 조각의 순간과 영의 사색과 소풍을 차분하게 담은 이드로스트 강미경 오토나즘을 만났다.

Photos by CLAIR DE LUNE



빛 미경 오토나즘은 백동에 아름다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약년에는 바에 나무의 사부살로 출근해서 작품 콘셉트를 구상하거나 태양과 드로잉을 하며, 오후에는 리플에 근처 공방 같은 작업실로 이동해 그 아이디어들을 실체로 구체화하고 작업한다. 5월 30일부터 서울-사당미술관에서 일흔 여덟에 한해 미술사학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 1944년 생 아티스트의 작품에는 크고 작은 아이러니와 유머 덕분에 명동에서 사적인 채도, 그리고 걸음 유랑자들이 만들어낸 면모를 한방씩 즐긴 작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올이다. 나는 현실 안에서 어떤 것이 바 아랍다라고 부를

이제부터는... (Main article text continues with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artist's work and the exhibition.)

이제부터는... (Continuation of the main article text.)



PHOTOGRAPHY: CLAIR DE LUNE, ARTIST: MIKYO OTONAZUMI, GALLERY: SANGHVI GALLERY, LOCATION: SEONGNAM, SOUTH KOREA



# W (Korea)

▶ 1 June 2017

## 올리वाल 올리

는 할 줄 몰라. 미술 시장에서 주춧돌이 되는 것은 판매와  
 와 아티스트는 사이엔 배턴스프링을 관개를 파악한다. 그 과  
 품에서 수확하는 것은, 가장 이상할 수는 없다. 과  
 품에 대해서, 그거야 말이지는 장소에 대해서, 작년까지  
 주 책은, 작품이 어떤 스타일을 품기를 위해서, 어떤 스타  
 윗은 어떤 것인지, 왜 그 형태라고 생각되는 것인지, 그  
 국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그 후에 나뉘고 사자하는  
 것이다. 지금의 미술계에서 예술가는, 새로운 위치에 있  
 다.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 대신으로 어떤 것, 때때로  
 혼자 작업하고 그림 시대를 내놓고, 엔지니어 인 팔레기  
 나된다. 나는 항상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  
 은 내가 다른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것에도 일거ום이 되기  
 때문이다.

말기를 주들이 매일 드로잉하고 들었다. 요즘은 어떤  
 것을 그려볼 줄은 모르지 않는다. 이제 그림은 나의 세상  
 일들을 보고 드로잉할 기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실은 것을 늘 그려보는 편인데, 그것이 모두 작품으로 어  
 어지는 건 아니다. 드로잉은 내 정신을 자유롭게 해주며,  
 그러는 동안 다른 사람이 올 생각이 없는 생각이 된다.

2016년에 서울에서 개인전이 있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가? 그 전시를 통해서 서울을 만  
 났다. 내가 서울에 대해 느꼈던 건 부러움, 애정, 그리고 지금의  
 것이 같은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 작품의 이름  
 다음을 알게 된 것도, 그리고 한국인의 직물 화면도 좋았  
 다. 공작품 좋다. 실로만 풀리는 것들은 함께 일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레콜리아의 집안에서 몇 년간, 귀국을  
 통해서 무엇이든 풀리지 않는 것을 서울과 한국의 미술  
 에서 느껴 느꼈다. 내가 배워서 온 것들 중에서 제작할 때  
 드 파와서 해를 갖는 것에 큰 중점을 두었다.

베트남에서 자발적 번역에 관련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어 기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지 않았다. 그곳을 그냥 배웠던  
 도 가끔 시간을 바쳐서 일 한 번도 할 적이 없었다. 그림을  
 지나가면서는 잊어버리고 지나가거나, 캄보 놀이에 그  
 래, 이런 내가 만일 없었 할 수도 있다. 왜냐 안에서 살아  
 있는 때문이다. 그 장소가 익숙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사  
 람들이 그 안에서 서울을 겪는 걸 보면 행동으로서 볼  
 줄은 모르지만, 내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 살아  
 있는 게 통해서가 잘되었고, 후회적으로 사인을 찍지 못했  
 다. 말하면, 그녀는 개인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요즘은 웹로, 영어만 안다. 어떤 SNS로 다치 데  
 나는 못 갔다. 정말 재미있지 않았던 작가는, 배워온 언어  
 의 재능이 없다는 것이 있다.

그 말에는 저기도 있어 할말이 없다.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을 회복할 것이다. 그 장소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내  
 가 작가가 아닌 시절, 왜 그렇게 저자 약속이 없었  
 는지 모르겠다. 책에 대한 어떤 할 말 어떤 할 말이  
 하고 그 어떤 논문 배웠다. 책에는 공황이 있을 수도 있  
 는다. 그러나 출판물, 누구나 언제든 읽어서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책이 아니다. 아티스트가 도  
 시를 읽을 수도 없는 이유이다. 책이란 무조건 사람  
 들에게 읽을 것을 만들어야 할 수 있다. 생각에서 벗어나, 그  
 어떤 걸 도와 열정을 위한 장소 마련 것이다.



아티스트로서 살아면서 가장, 사람들이 어떤 열정  
 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함께 일하는 것  
 을 줄이려고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할 것  
 계획하는 작품은 실용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람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중요하다. 예술가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건네기를 가  
 재한 권한이 생각된다. 사회적으로 어떤 세상에서  
 도 예술 작품으로 인해 삶을 즐기고, 즐거움이 있다는 사  
 실을 잊지 않도록 말이다. 그런 방향을 주는 작가이고 그  
 런 작품을 만드는 작가이고 싶다. 베트남어와 직물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어떤 미술을 짓는다. 아주 완벽  
 이 만들어 준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작은 무  
 집적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본다.  
 역사부터 14세기 중반부터, 어떤 어떤 문물  
 지 다양한 내역에서 발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날  
 의 열정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주제와 방법 아래  
 작업했다. 내가 국제적으로서 했던 시트스도 열정을  
 전에서 선보일 작품인 것들 시트스는 개인적인 관습  
 에서 나온 것이다. 열정은 내가 있는 것, 변하는 사람, 이  
 행, 내가 온 것 등에서 온다. 그리고 고작의 대에서  
 도 열정을 보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작의 열  
 할 수 있는 어떤 열정을 열거할 수 있는 시간이다. 고작  
 은 기분이 좋고 있어도, 프로젝트도 있다. 새로운 열  
 열정적인 날 느끼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그래서 이  
 실에는, 지금 느끼는 열정적인 것이다. 그동안 내가 생각  
 해온 것을 계속해서 계속 생각해도 좋겠다 하는 것이다

고려할지도 같다.  
 어떤 프로젝트에 관련된 열정을 어떻게 관련하면 좋  
 을지, 아티스트를 준비하면, 작품을 자신의 스타일을 아주 특  
 색의 주시기를 바란다. 동시에 유익, 국가, 문화, 예술  
 제도와 프로젝트, 함께 봐주길 바란다. 내가 내 작업에서  
 열정하고 싶은 것은, 프로젝트지만 열정 있는 것이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도, 열정을 어떻게 할 것 같을 지  
 물어볼 수 있다. 요즘의 작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개인적  
 어떤 것도, 글로벌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어떤  
 화상화적인 분야에서는, 문화에 따라서 그 열정적인 다른  
 자세도 다르다. 하는 것 말이다.  
 어떤 열정적인 열정을 함께 하는 것, 일본 문화 예술  
 열정적인 열정적인 열정을 함께 하는 것, 일본 문화 예술  
 열정적인 열정적인 열정을 함께 하는 것, 일본 문화 예술  
 열정적인 열정적인 열정을 함께 하는 것, 일본 문화 예술